

원산 동·서 비밀 통로

웅장함, 변화함, 그리고 고귀함 —— 중산 고속도로에서 멀리 바라보든지, 검담산에 올라 가까이 바라보든지 원산 그랜드 호텔은 이러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호텔은 최초로 외국인 귀빈이나 국가 원수의 가족들을 위한 장소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자의 의도가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호텔의 최초 경영자는 당시 영부인 쑹메이링이 주관하던 “돈목간친회”였습니다. 작가 리통하오는 이 곳에서 3~5 일마다 파티가 열렸고 “대사들과 귀부인들은 음악에 맞춰 동이 틀 때까지 춤을 췄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춤과 노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을 당시 원산 그랜드 호텔이 매일 밤 가무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호텔은 전쟁의 그림자 속 장제스 총통과 귀빈들의 안전을 위해 동쪽과 서쪽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비상 시에 대피로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호텔의 실제 운영은 국가 원수였던 장제스 총통의 가족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쑹메이링은 그녀의 외손녀이자 전 행정원장 쿵샹시의 둘째 딸로서 쿵과 쑹, 두 정재계 가문이 혼인으로 맺은 후손인 쿵링웨이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쿵”이라는 별명을 가진 쿵링웨이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제멋대로라고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영부인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줄곧 호텔의 운영 방향을 주도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복을 자주 입고 시가를 즐겨 피우며 미혼을 유지했던 쿵링웨이는 권력이 집안에서 태어나 성별에 제한되지 않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일 수 있었던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옛 대만민중당 본부

다통구의 텐수이로는 언뜻 건물이 줄지어 서 있고 오토바이가 삼삼오오 주차되어 있는 평범한 타이베이시 다른 거리들과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텐수이로의 홀수 번호 쪽으로 걷고 있다면 45번 문패를 달고 있는 곳을 주목해 보세요.

뜻밖에도 그 곳은 대만인이 결성한 역사상 최초의 정당인 대만민중당의 옛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1927년 장웨이수이, 린셴탕, 리잉장 등의 지식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방면의 3대 자유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정치적 독재에 대항하고 농민과 노동자 및 기타 계급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아편과 같은 사회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때 대만민중당 창당에 동의했던 총독부는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꾸고 총회 현장에 경찰을 파견하여 습격 후 당 지도부를 강제로 체포했습니다. 당신이 밟고 있는 자리가 바로 당시 경찰들이 대만민중당에 속해 있던 16명의 저항 세력을 호송해 가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자였던 장웨이수이는 체포 후 반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겨우 4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록 대만민중당 본부는 이미 철거되었지만 이곳에 서있다면 “동포는 단결해야 하고, 단결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장웨이수이 선생의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하이광 옛 거주지

원저우가 18 항 16 농은 몇 번의 굽이진 길을 돌아야만 도착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골목입니다. 하지만 약 60년 전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곳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인하이광 선생에게 철학적 문제와 정치적 형세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뛰어난 사유 능력을 가진 청년 문하생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인하이광 및 그 골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군경 스파이였습니다.

인하이광 선생은 자유주의를 수용한 철학자로 본래 인민국립 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60년, 반체제 잡지 <자유중국>에 글을 투고하고 레이전 등과 함께 기존 정당에 반대하는 조직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아 이후 더 이상 교편을 잡지 못했고 그의 저서 역시도 금지되며 평생동안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이광 선생은 1969년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작은 집에서 계속하여 사색하고 글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인하이광 선생의 글 <대강동류당부주>에서 그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세 가지 합리적인 염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막힐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인하이광 선생은 살아 계시는 동안 이 염원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이 좁고 조용한 골목길에서 그의 옛 거주지를 거닐며 자유를 위해 분투한 이에게 경의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 골목

대만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정난룡의 위치는 대체 불가로, 6 미터 폭의 이 골목은 정난룡 선생이 매일 잡지사를 출퇴근하며 지나다닌 길이자 도의를 위해 분신으로써 희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4년 3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정난룡은 잡지사에서 일하는 날이면 이 골목의 11호 문패가 걸린 곳의 문을 열고 3층 총편집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창간한 주간지 <자유시대>는 계엄체제와 대만 주둔군 사령부의 해제를 요구하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시국 비판적인 글을 자주 게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자와 투고자가 글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자유시보> 목차 상에 필자의 이름을 종종 드러내지 않았으며 “본 간행물의 책임은 전적으로 총편집장 정난룡에게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골목은 정난룡 선생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 수행되던 곳으로 1989년 4월 7일 아침, 골목 주변에 백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고 소방차 역시 미리 골목길 입구에서 명령을 대기했습니다. 정난룡은 본래 <자유시대>에 법학자가 작성한 <대만공화국헌법초안>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반란”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지만,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기소 이유를 부인하며 법정 출두를 거부한 채 스스로를 총편집장실에 가두었습니다. 경찰이 잡지사에 들이닥쳐 철문을 뚫으려 하는 순간 정난룡 선생은 휘발유를 뿌려 분신하였고, 오늘날 이곳 11호 3층은 정난룡 재단의 소재지이자 여전히 당시 불타버린 총편집장 집무실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경 반얀트리/사원

많은 타이베이 시민들은 구팅이라고 하면 아마 MRT 역 주변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허핑서로 입구에서 두 번의 모퉁이만 돌면 바로 진장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허핑서로의 변화하고 떠들썩한 모습과는 달리 진장가에는 4~5층 높이의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시끄러운 차와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진장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토지신을 모시는 사원인 복덕야장경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곳 사원 뒤편에 위치한 오래된 반얀트리(고목 나무)는 둘레가 10 미터에 달하고 그 나이는 250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은 종종 나무 아래에 모여 대화의 장을 열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원이 역사적으로 청나라 시기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면서 세운 “구팅 촌락”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팅 촌락의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으나 유공천 운하와 같은 관개 시설이 개설되면서 징메이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켰고, 근처 구팅 지역의 인구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개척자들의 신앙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원은 민족 집단 간의 협력과 공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서북부 일대의 객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타이베이로 이주하여 구팅에 정착하였고 이들이 결성한 “백공회”는 장경궁의 보수와 제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省)에서 이주하여 초기 난지창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 일부 역시 그들의 자녀가 성장한 이후 근접한 구팅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장경 사원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오래된 반얀트리(고목 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즐기며 장경 사원에서 평안을 바랄 수 있습니다.

베이터우 어린이 공원

MRT 베이터우역에서부터 신베이터우역까지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온천 호텔과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공중 목욕탕이 늘어서 있으며, 매년 겨울이 오면 이 곳은 타이베이 사람들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됩니다.

일찍이 일제강점기때부터 사람들은 베이터우에서 온천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였습니다. 지금의 베이터우 어린이 공원은 당시 공중 목욕탕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던 곳으로 어른들이 온천을 즐길 때 어린이들은 옆에 위치한 이 곳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당시 어렸던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백발이 무성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들이 타고 놀던 돌 미끄럼틀은 지금도 공원에 남아 주말마다 모든 세대의 베이터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일본인이 공원 주변에 심었던 열대식물도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자라온 것으로, 열대의 운치를 가득 풍기는 이 식물은 식민주의자들의 “남쪽 나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미 떠나갔지만 가끔은 짙고 때로는 열은 유행의 향기가 여전히 베이터우의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화흥 광산

광산이라고 하면 일년 내내 산길과 운반 철도가 안개 속에 둘러싸인 옛날 영화 속 외딴 마을이 떠오를 것입니다. 변화한 신이구에 뜻밖에 일제 강점기 말의 화흥 광산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처 타이베이 의과 대학의 우싱 상권에서 간단한 식사를 즐긴 뒤, 자전거로 15~20 분 혹은 걸어서 30~40 분 정도 이동하면 작은 언덕에 도착하는데 이 언덕을 지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곧 화흥 광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건설된 이 광산은 1970 년대에 채굴이 중단되면서 폐기되었지만 다행히 시정부의 리모델링 계획을 통해 광산의 모습을 전시하고 채굴 과정을 소개하는 테마 파크로 새롭게 탈바꿈되었습니다. 광산 옆에는 박쥐 동굴도 있어 천장에 매달려 있는 포유류의 먼 친척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경관에 관심이 있다면 광산 안의 중유석과 경사면 토석의 흐름을 방지하는 다양한 공법도 관심 있게 지켜 볼만 합니다.

비록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과거 번성했던 광업의 모습을 충분히 떠오르게 해줄 것이며 광산을 돌아본 후에는 가까운 사수산 산책로까지 걸어가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PS. 화흥 광산은 신이구 리우허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흑시 인근 타이허리에도 덕흥 탄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열정적인 이장님께서 예약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오분상계도

매일 교통이 붐비는 시간 때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후와 시즈 사이를 오고 가는데 어찌면 당신도 그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에 네이후와 시즈의 교차점을 지날 때, 자연적인 도시 경계선인 네이겨우천을 유심히 주목해보세요. 시 정부는 생태공학적인 방법으로 네이겨우천을 개조하여 생태 환경을 성공적으로 복원시켰습니다. 녹음과 곤충,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냇가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며 이 곳에 위치한 문화 경관인 “오분상계도” 역시 방문할 만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분상계도는 200 미터 길이에 이르는 모자이크 작품으로 이 대작을 통해 봄에 논밭을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던 100년 전의 농경 생활과 탄광 채굴 후 오분 현수교를 통해 난강으로 운반하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화가로 데뷔한 연송타오는 1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복귀 후 유화로 전향해 대만 각지의 농촌 풍경을 그렸습니다. 오분상계도는 연 선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그는 반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방문과 수정을 거쳐 밑그림을 작업한 뒤 네이후 커뮤니티 대학교, 동후 중학교, 캉닝 간호 대학 등의 학생들에게 채색 작업을 맡겨 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곳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현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 사회의 역사를 담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강 차 제조 시범 센터

오늘 우리는 난강을 방문해 선조들이 개척한 발자취를 따라 산 안 쪽으로 향합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바람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경천을 분계점으로 한 쪽은 이전에 난강 지역의 8대 촌락 중 하나였던 지우짱, 또 다른 한쪽은 시즈로 나누어집니다. 청나라 때 차를 재배하던 많은 농민들이 안시 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 그중 왕수이진과 웨이징시는 차 명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강 라오랴오 일대 역시 대만 포종차의 발원지입니다.

구름과 안개가 차밭을 누비며 은은하고 향기로운 내음이 퍼지는 이 곳은 한때 대만의 가장 중요한 차, 광엽 그리고 오스만투스(계수나무 꽃)의 주요한 산업 경로였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붉은 벽돌의 전통 고택은 차 생산이 번성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비록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이는 라오랴오를 세상과 단절된 환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차 시연장에서 명인이 이야기해주는 청나라 시대 차 재배 및 제조의 문화·역사적 흐름을 듣자면, 문화적 경로는 차 산업의 수출 무역으로서 다시 난강 항구에서 다다오청으로 운송되었고 이는 타이베이의 경제적 번영을 이끈 선두주자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뜻한 포종차 한 잔에 조금이라도 마음은 이곳에서 가라앉히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 청심우롱차의 풍미를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한 모금의 축복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면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입니다.

타이베이 공연예술 센터 별빛 정원

타이베이 공연예술 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곳은 미국 언론 CNN에서 선정한 올해 가장 혁신적인 건축물이자 영국 언론 <더 가디언>에서 극찬한 올해 최우수 건축물이며, 미국 타임지의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100대 명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소는 국제 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국제적인 팀인 메트로폴리탄 건축 사무소에게 넘겨졌고, 공동 창립자이자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렘 콜하스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타이베이 공연예술 센터의 바닥면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콜하스의 설계는 참신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가려져 있는 1,200 개의 외벽 곡면 유리는 다국적 팀의 전문적인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극장 중 두 곳은 평상시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 시에 연결하여 2,300 석 규모의 대극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콜하스는 대만의 유명한 원앙 휘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옥상에 위치한 소원을 이루는 “별빛 정원” 역시 추천할 만한 방문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젠탄과 타이베이 분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타이베이 공연예술 팀은 정원에서 음악회를 열어 관객들이 음악과 식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국립 정치 대학교 달현 도서관

인스타그램에서 “대만의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곳이 바로 원산구에 위치한 국립 정치 대학교 달현 도서관입니다. 언제나 이 곳에는 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행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숫가에 위치한 달현 도서관에서는 청둥오리 무리가 호수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이동해 높이 개방된 아트리움에 들어서면 도서관 전체의 광활하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1층에서 올려다보든 꼭대기 층에서 내려다보든, 어디에서든지 7층 전체에 층층이 놓인 책장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도서관은 “조립식 건축 공법”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 공법은 블록 쌓기처럼 미리 준비한 건축 구조물을 하나하나 조립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대만의 룬타이 건설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공법과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인 “달현”은 기부자 사무엘 인의 스승이자 국내 저명한 기업 경영학자인 사도달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국립 정치 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꼭 이곳에 방문하여 책의 내음을 느껴보세요!

달현 도서관에 가기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도서관 출입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 주차할 때 혹은 도서관 출입 후 규정과 관련하여 질서를 지키고 타인의 독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기본 에티켓입니다.

니시혼간지 사원

현재의 니시혼간지 광장은 휴식·관광 공간으로 일본식 시계탑과 사진을 찍거나 광장 옆에 있는 "린반쇼"(본래 주지스님이 살던 곳)에서 차와 화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헥타르가 조금 넘는 이 지역에는 한때 백여 채의 철제 집과 목조 주택이 뒤섞여 있었고, 314 가구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생활하며 "중화로 174호"라는 하나의 문패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각지에서 중화민국 정부화 함께 대만으로 넘어온 군인들이었습니다. 부유하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았던 그들은 정부가 배급한 집에서 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장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 임시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대만에 잠시 머물 뿐이며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5년 4월 5일 새벽, 니시혼간지 사원에서 현재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고, 대만에서 보내는 시간이 20~30년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이어 가며 점차 이국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시 재개발과 도시 미화 사업으로 당시에 지어졌던 불법 건축물 또한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예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타이베이시 정부의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해 일부분이 일제 강점기 당시 건축물(옛 정토진중본원사파대만별원)의 모습을 되찾았고 오늘날 관람 및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